

강원도정 소식

### 축사 베타목 지주 보강

겨울철 축산분야 자연재해 예방 대책 추진

강원도는 지난 16일 겨울철 폭설 및 한파 등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가축과 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해 따뜻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도록 '겨울철 축산분야 자연재난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잦은 기습 한파와 산간지역에 많은 눈이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겨울 기상전망에 따라 폭설에 대비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사양관리에 중점을 뒀다. 재해에 취약한 노후 축사시설 사전 보강과 겨울철 가축사양관리, 시설물관리 요령 등 농가 지도·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축산농가에서는 노후 사육시설의 베타목 지주를 보강 설치하고 축사내 셋바탕 유입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 비닐을 준비하는 한편 급수시설 동파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및 보온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체열소모가 많은 겨울철 가축사양관리로 깔짚을 충분히 깔아주며, 어린가축의 설사, 호흡기 질병 예방 관리를 위한 보온·환기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시·군에서는 무허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가축입식을 억제토록 지도하고, 대설로 인해 고립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료를 충분히 비축하고, 양봉과 재래봉 사육농가 보온관리와 대설 예보시 안전시설로 대피 등 농가지도를 강화하고 아울러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은 축사화재예방을 위해 전기안전점검 등 지도를 강화하도록 시·군에 지시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겨울철 자연재해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도 축산과(249-2722)나 가축위생시험소(248-6625) 또는 거주지 시군 축산부서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 “고성명태 우수성 증명했다”

## 고성군, 고성명태 지리적표시 등록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고성군의 대표적 특산물인 명태의 명품화와 차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고성명태 지리적표시제 등록사업이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은 지난 15일 군청상황실에서 정세철 부군수, 최영희 고성군수협장, 손영문 죽왕수협장, 고성명태생산자협회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성명태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사)향토지적재산본부 김영민 조사연구실장은 “생산계획, 품질특성 설명, 유명성 입증, 지리적 관련성, 자체관리기준, 유지관리방안 등의 지리적표시제등록 실체적 요건 항목을 선정하고, 고성명태가 해풍건조와 해양심층수를 이용해 무기질과 아미노산 등이 타 지역 명태보다 풍부한 것을 증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성명태의 역사성, 인지도조사, 명성 및 홍보, 지형 및 기상 등 해풍건조의 유리한 입지조



지난 15일 군청상황실에서 고성명태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건, 생산·품질·상품화 단계기준과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등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의 지리적표시제등록 사업추진현황을 살펴 보면 2011년 7월 사업계획수립 및 설명회를 개최했고, 8월 (사) 강원고성명태 생산자협회 설립 법인 신청을 한 후, 10월 특허청 등록출원을 마친 상태다.

이후 오는 11월말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고, 특허청의 심의 절

차가 완료되면 2012년 2월에 등록증을 교부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명태의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완료되면 향후 고성명태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져 명태관련사업 종사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명태 본 고장의 옛 명성을 되살려 위축된 고성군 경제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사업추진이 차질없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 고성군 지역복지사업 최우수 평가

## 보건복지부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대회서 시상

고성군이 보건복지부가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복지정책 추진결과를 평가한 결과 '지역복지사업'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8천만원의 특별지원금을 받았다.

고성군은 지난 1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11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유공공무원 시상과 함께 특별지원금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 결과 중 사회 복지분야 추진실적을 각 시·군·구별로 계량화해 선정한 것으로, 군은 지난해 추진한 복지정책 추진 실적과 노인일자리창출, 의료 급여 관리 등 지역복지사업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성군은 이번 수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복지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 1회, 우수상 2회 등 연속 3회 수상을 기록

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연속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았다.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 황명동 기획조정팀장은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지원받은 8천만원을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뜻있는 주민과 기업 등 지역사회와 연대해 주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 풍요롭고 희망찬 고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 “관광활성화 정책 개발 기여”

### 손문영 회장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 위촉



손문영 재경속초시민회장(사진)이 지난 9일 한나라당의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 여의도연구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손회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 여의도연구소 회의실에서 분야별 자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문화분야 정책자문위원 위촉장을 받았다.

손문영 회장은 “국내 최고의 정책자문기구인 여의도연구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만큼 새로운 국가적 비전 창출에 헌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악권의 관광활성화 및 복지증진 등 실질적인 지역연계 정책도 만들어 설악권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최근 국가적 복지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차대한 임무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소통하며 상생의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디딤돌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손회장이 이번에 여의도연구소 사회문화분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정부의 관광·복지정책과 설악권의 연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손문영 회장은 그동안 설악권에서 사회복지협의회, 적십자봉사회, 속초연탄은행 등 봉사단체 회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 평동 강원도 청년위원회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원도 청년위원회(위원장 전제원)는 지난 15일 오후 2시 고성군청을 방문해 필리핀 출신 김파티마씨에게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 기금으로 150만원을 전달했다.

최광호 기자

